

# 8승 20패, 7역전패...

### 근성 잃은 타이거즈 전술 마저 '쌍' 빈타...실책...계투 난조...스탠딩 삼진 "달라졌다더니" 팬들 감독사퇴 서명



심각한 감독 2경기 연속 두산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지난 1일 잠실구장 3루 덕아웃에서 KIA 조범현 감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감독의 책임을 묻는 글과 함께 '사퇴 서명' 릴레이까지 시작됐다. 투지 잃은 선수와 속절없는 덕 아웃. 3일부터 시작되는 9연전이 힘겨워 보이는 이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승 20패, 7번의 역전패' KIA 타이거즈가 1일 잠실 구장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이틀 연속 역전패하며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20패를 채우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KIA가 당한 20패 중 7패는 뼈아픈 역전패다. 개막 후 겨우 8승을 챙기는 데 그친 KIA는 눈앞에서 놓친 7차례의 역전패가 두고 두고 아쉬울 수 밖에 없다. KIA는 지난 3월 2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부터 역전패, 불길한 조짐이 일었다. 1회 2점을 먼저 내줬던 KIA는 3회 3점을 뽑으며 역전했지만 뒷심부족으로 3-4로 재역전 당했다. 1회 선취점을 뺏고도 역전을 당한 경기도 3차례. 지난 달 1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회 2점을 뽑은 뒤 2회말 이현근의 실책을 시작으로 선발 전병두가 4실점 하면서 4-8로 역전패 했다. 13일엔 1회 3점을 뽑은 후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해 3-4로 이틀 연속 역전패했다. 지난달 27일 SK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아웃카운트 하나 없이 3점을 뽑았던 KIA는 이후 8이닝 동안 단 1점도 얻지 못하고 3-4로 졌다.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두산에게 6-7로 패배했던 지난달 30일 잠실 경기의 총체적 난국에 빠진 KIA의 모

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KIA는 3회 1점을 먼저 얻은 뒤 6회 5점을 뽑아내며 6-1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두산이 8회에 단 6점을 뽑으며 5점차의 승부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두산은 8회 3개의 안타로 6점을 만들었다. 발데스의 실책과 5개의 4사구를 낚발한 중간 계투진이 빛이낸 뼈아픈 역전패였다. 이날 경기는 용병술도 도마위에 올랐다. 선발 양현종을 일찌감치 내렸던 덕 아웃은 8회 1사 1루에 임준혁을 마운드에 올렸다. 임준혁은 8개의 볼로 연속 볼넷을 내준 뒤 안타를 얻어 맞았다.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2개의 안타와 3개의 4사구를 허용할 때 까지 투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회 2사 2,3루의 마지막 기회에서는 김종국이 삼진을 당하며 6-7로 경기가 끝났다. 김선빈 대신 교체로 들어온 김종국은 앞선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데 이어, 마지막 기회에서도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5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최희섭과 어깨 피로로 개점 휴업 상태인 마무리 한기주도 어이없는 역전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KIA 홈페이지에는 6실점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 '지존' 신지애 아쉬운 2위

### 휘닉스파크클래식 최종 라운드... 김하늘 프로 데뷔 후 첫 우승

지난 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신인왕 김하늘(20·코오롱)이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막판 역전우승을 노렸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는 퍼팅 부진으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김하늘은 2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열린 휘닉스파크클래식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2위 신지애(20·하이마트)를 4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상금 3천600만원을 차지했다. 2라운드까지 1타 뒤진 공동 2위를 달렸던 김하늘은 4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전 날 단독 1위였던 김민선(21·김영주골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7번 홀(파5)에서 김민선과 똑같이 버디를 잡은 김하늘은 8번 홀(파3)에서도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뛰어나갔다. 9번 홀(파4)에서 김민선이 6타를 친 데에 2위권과 격차를 벌린 김하늘은 14번 홀(파5)에서 위기를 맞았다. 2위권과 2타 앞서 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틀어 빠뜨려 보기 없이 기세를 올리던 신지애에 추월을 허용할 지경에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침착하게 보기로 막은 김하늘은 1타 차로 따라붙은 신지애가 이후 버디 기회를 좀처럼 살리지 못한 덕에 살아남은 리드를 지켜냈다. 14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김하늘을 추격한 신지애는 15번 홀(파3)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 직전에 멈춰서는 바람에 파에 만족해야 했고 남은 세 홀에서도 버디 시도가 조금씩 빗나가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반면 김하늘은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2타 차로 앞서 한숨을 돌렸고 여유를 되찾은 뒤 17번 홀(파5)과 18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데뷔 후 첫 우승을 자축했다.

# 박희영 단독선두 "감잡았어"

### 샘그룹챔피언십 1R... 김미현 2위로 출발 '2연패 시동'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게 잔뜩 눌러 지내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태극 자매들이 표문을 열었다. 2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시더리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샘그룹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새내기 박희영(21)이 2언더파 69타를 쳐 단독 선두에 나섰고 김미현(31·KTF)과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1타차 공동 2위를 달렸다. 2오버파 73타를 쳐 18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오초아는 공동 14위로 밀렸지만 선두 박희영과 4타차에 불과하다. 첫날 리더보드 상단 3명이 모두 한국 선수로 채워진 것은 올해 처음이다. 작년 7월 이선화(22·CJ)가 HSBC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10개월 동안 23개 대회까지 이어진 한국 선수의 우승 가뭄을 풀어낼 기회를 잡은 셈이다. 국내에서 볼 때 동료들이 '가장 멋진 스윙을 가진 선수'로 꼽았던 박희영은 특기인 장타에 송곳같은 아이언샷을 앞세워 까다로운 코스에서 버디 3개를 뽑아내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무릎수술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김미현은 장타를 치는 선수에게 유리한 긴 코스에서 '마술같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페어웨이 우드샷을 구사해 버디 3개를 수확하고 보기 2개를 곁들여 대회 2연패의 발판을 마련했다.



# 맨유는 지성만 뜨면 이긴다?

37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절정에 이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27). 3일 밤(한국시간) 벌어지는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 '지성불패' 맨유 웨스트햄 징크스 깬다

### 오늘 밤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한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질주가 계속 이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박지성은 3일 밤(이하 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릴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자적인 정규리그 10경기 출전 기록을 이미 세운 박지성의 출전 가능성은 커 보인다. 박지성은 지난 달 30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준결승 2차전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도왔던 터라 사기도 잔뜩 올라 있다. 박지성도 맨유 한국어판 홈페이지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전에 중요한 두 경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출전 의욕을 강하게 내비쳤다. 맨유는 지난 해 12월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한 뼈아픈 기억도 있어 이번 실목전에서 단단히 버리고 있다. 또 프리미어리그 2연패를 위해서라도 맨유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36라운드에서 첼시가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에 맨유는 웨스트햄 전에서 비기기가라든가 한다면 우승 문턱을 넘기가 쉽다. 정규리그 두 경기를 남긴 맨유(25승6무5패)는 첼시(24승9무3패)와 승점이 81로 같지만 골득실 차에서 우위를 보이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맨유는 골득실차(맨유 +53, 첼시 +37)에서는 크게 앞서 있어 웨스트햄 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 김동진·이호의 제니트 UEFA컵 결승에 올라

### 오는 15일 레인저스와 격돌

러시아 프로축구 챔피언 제니트 샴페테르부르크가 독일 분데스리가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컵 결승에 올랐다.

UEFA컵 결승에 올라 제니트의 '한국인 선수 듀오' 중 미드필더 이호는 후반 43분 교체 투입됐지만 짧은 시간이라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 달 무릎 부상으로 귀국해 경진을 받았던 김동진은 엔트리에서 아예 빠졌다.

# 광주일고 4강 실패

###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 19이닝 끝 배명에 1-3 저

광주일고가 제 42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8강 경기에서 배명고와 이틀간의 접전을 벌였지만 1-3으로 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광주일고는 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배명고와의 경기에서 연장 19회 초 무사 2,3루 상황에서 배명고의 3번타자 문상철에게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1-3으로 졌다. 지난 1일 경기에서 연장 15회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고도 각각 안타 10, 볼넷 7개씩으로 1-1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팀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스펜디드로 경기를 재개했다. 전날 경기에서 이어 두 팀은 팽팽한 대결을 펼치며 19회까지 1-1의 균형을 이어갔다. 하지만 16회 2사 만루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던 광주일고 투수 장민제가 19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의 상황을 맞았다. 이후 패스트볼로 무사 2,3루가 됐고, 배명고의 문상철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승부가 1-3으로 기울었다. 타선의 집중력에서 밀린 광주일고는 12안타 10사사구를 뺏고도 21개의 잔루를 남기며 분패해 대회 2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고교야구에서 35년만에 연장 19이닝의 접전을 벌인 두 팀의 경기 시간은 5시간 22분. 마운드에 오른 양팀의 투수 5명은 총 576개의 공을 던졌고 양팀 타자는 158차례 타석에 들어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일(토)
- 메이저리그 (시애틀: 뉴욕Y)(07:55·Xports)
- NBA 플레이오프 (09:00·MBCE-SPN)
- 프로야구 (LG: 두산)(13:00·MBC·KBSN SPORTS), (롯데: 기아)(16:50·SBS스포츠), (삼성: 한화)(16:50·Xports), (SK: 우리)(17:00·MBCE-SPN)
- 남자핸드볼 한일 정기전(14:20·SBS)
- K리그 (성남: 포항)(14:5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Utd: 웨스트햄)(20:30·MBCE-SPN)
- PGA 와코비아 챔피언십 3R(04:0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콜로라도)(08:55·Xports)
- SBS 복심 주니어 마들급 (오스카 델라 호야: 스티브 포브스)(10:15·SBS스포츠)
- 매경 오픈 골프 최종라운드(13:00·KBS2)
- K리그 (대전: 경남)(14:50·SBS스포츠·MBCE-SPN·KBSN SPORTS)
- 프로야구 (두산: LG)(16:30·KBSN SPORTS), (롯데: 기아)(16:50·SBS스포츠), (삼성: 한화)(16:50·Xports)
-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요미우리)(18:00·MBCE-SPN)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에버튼)(21:30), (리버풀: 맨체스터시티)(00:00·MBCE-SPN)
-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 (AC밀란: 인터밀란)(22:00·KBSN SPORTS)